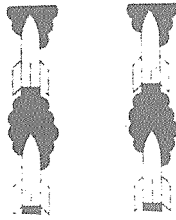


# 電子工業日誌



〈1990. 3. 1~3. 31〉

- 3. 1: 逓信部, 패킷交換機 사용이 민간기업에 허용될 전망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전문업체들이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고.
- 3. 2: 工振廳,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工場技術顧問制를 확대, 기술지도 대상업체를 '89년 46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대폭 늘리기로.
- 3. 2: 日 방송협회(NHK), NHK가 개발한 HDTV의 기술을 우리나라 삼성, 금성社에 제공키로.
- 3. 5: 商工部, 計測器機 産業을 적극 육성키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, '94년까지 168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.
- 3. 6: 中振公,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이 품질 및 생산성향상, 경영개선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차급과 기술 경영지도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.
- 3. 6: 産技研, 次世代 컴퓨터 기술로 기대되는 병렬처리 컴퓨터기술인 POPA를 포항공대와 공동개발, 640 MIPS까지 성능을 지녀 가장 적절한 구성으로 변형,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.
- 3. 6: 生産技術研, 국내 처음으로 퍼스널컴퓨터(PC), 모니터, 프린터 등 정보 및 사무기기의 안전규격에 관한 인증을 위해 K마크 제정 인증제도를 실시키로.
- 3. 7: 商工部, 日製 家電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21인치 이상 대형 컬러TV, CDP, DAT, 21인치 이상 벨브유리 등 4개품목을 수입대면화 대상으로 지정, 對日수입을 제한키로.
- 3. 8: 商工部,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지원케 되는 기술개발 과제 300개를 선정했다고.
- 3. 8: 中振公,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산전문가를 확보 3월부터 진단지도를 실시키로.

- 3. 8: 生技院, HDTV 개발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HDTV 전담개발본부인 「제 1 연구개발사업단」을 구성키로.
- 3. 9: 工振廳,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당면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1,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51개 업체가 KS수준에 도달하는 등 품질 및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됐다.
- 3. 9: 科技院, 美 유타州的 웨버주립대와 3년간 소형 실험위성(Ko-rsat)을 공동개발해 발사하기로.
- 3. 10: 工振廳, 「'89 기술지도사업종합평가」에서 중소기업의 고유기술 향상에는 큰 도움을 준 반면 전산화 등 첨단기술지도는 미흡하다고 지적.
- 3. 12: 中企銀, 중소기업의 '90년 설비투자는 '85년이래 가장 낮은 10.5%에 그칠 것으로 전망.
- 3. 13: 特許廳, 「知的재산권 정보종합전산망 구축계획」의 일환으로 최근 심사, 심판업무자료 등 각종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보관과 검색을 위해 光 파일 화상시스템을 도입 설치했다고.
- 3. 13: 商工部, 수출상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電子 등 5대 수출 주종상품을 대상으로 1,000억원을 지원해 한국형 상품모델을 개발 집중 육성할 방침

이라고.

- 3. 14: 科技處, 컴퓨터를 이용한 범 죄발생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자료파괴 위험 등 최근 들어 컴퓨터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키로.
- 3. 14: 政府, 2011년까지 정보산업의 생산규모를 GNP 대비 28%인 2,059억 달러로 끌어 올려 이 중 1,012억 달러를 수출키로 하는 등 정보산업을 미래주도 산업으로 육성키로.
- 3. 15: 政府, '92년 EC통합에 대비,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對EC 연계 진출과 한국전용공단조성 등을 적극 추진키로.
- 3. 20: 工振廳, 기술수준 향상책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, 현장 기반기술 향상이 절실하다고.
- 3. 21: 貿協, 수출부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적기준무역여유 발행제도 신설,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부활, 관세징수유예제도의 한시적 운영,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확대, 외환매매율 차이 조정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.
- 3. 23: 通信公, ISDN을 '94년부터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확정하고 공통선번호방식(No. 7) 개발 등 고도종합통신망(ENS)을 조기 건설키로.
- 3. 27: 科技處, 韓·中間에 과거협력을 본격화 하기로 하고 정부레벨로 대표단을 교환키로.
- 3. 27: 政府, 국내기업들이 소련 등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기업끼리 현장에서 과당경쟁을 할 경우 금융지원 중단 등 규제를 강화키로.
- 3. 28: 商工部,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제정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.
- 3. 31: 財務部, 「지역金融審委」를 가동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점 논의키로.